



전북농기원, 부안서 우수농식품 연구회 총회

전북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에서는 최근 부안 일대에서 전북우수농식품 연구회원 50명을 대상으로 연구회 총회 및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발명체코, 손소독 및 교육 일정을 2부씩 나누어서 교차적으로 진행하여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다.

농식품 가공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회 정기 총회 및 임원 선출을 진행하였고 제품생산 제조 공정, 시설장비 및 생산 라인 현장견학과 더불어 농식품 상품화 개발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병양차, 오디즙 등을 생산하는 '내추럴팜' (채명식 대표), 전통장류 생산하는 '백년농장' (김성숙 대표)을 방문하여 생산물 가공 take-out 제품 체험을 할뿐만 아니라 창업장 운영현황·제품 생산 등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이번 임원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김영광 회장은 "회장에 당선돼 부담감도 있지만 연구회원들의 농식품 가공창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천사누리지사협, '하하호호 나눔붕어빵' 사업

군산시 수송동은 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김종필, 이미아 공동위원장)가 동절기를 맞아 11일부터 '하하호호 나눔붕어빵' 사업을 통해 추위진 날씨가 어려운 이웃을 찾아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하하호호 나눔붕어빵' 사업은 주민 및 복지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이웃들에게 직접 붕어빵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주민들과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나눔과 희망의 애정촌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체 특화사업이다. 이날 나눔 행사는 갑작스레 찾아온 추위에 수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등을 위해 방문한 주민들에게 협의체 위원들의 귀한 자원봉사로 직접 구운 붕어빵 간식을 나누어 그 의미가 더해졌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경찰, 국가중요시설 대테러 예방 간담회

군산경찰서(서장 최홍범)는 11일 테러취약시설 보안팀장과 테러예방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찰 및 각 국가중요시설 보안팀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실시된 테러 예방 간담회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테러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개최했다.

각 시설 보안담당자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이 테러의 대상이 될 경우 국가적 혼란이 생기고 국민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있으니 철저한 보안의식을 갖고 근무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각 시설별 예로사항을 청취하고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진안군, 재활장애인 대상 세상나들이

진안군보건소(소장 이임옥)는 지난 10일 재활장애인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활장애인인 가족 50여명이 함께 임실치즈 테마파크를 방문해 꽃구경과 피자 및 블루베리 양갱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다.

재활장애인 세상나들이는 뇌졸중을 포함한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재활사업 등록 장애인 대상으로 일상 및 여가를 위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나들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체험장 등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치즈 피자 및 블루베리 양갱 만들기 체험을 통해 직접 만든 음식과 맞보며 시간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진안=우태만 기자

미래 주역을 위한 온정의 손길

애플러스 이사 · 다함홀딩스 대표 · 전북은행 부행장... 장학금 · 청결용품 기탁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에 무주군 교육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과 물품 기탁이 줄을 잇고 있어 훈훈한 감동을 던져주고 있다. 11일 애플러스공조 이사 김병희, (주)다함홀딩스 대표 김보곤은 지역의 발전과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무주군을 찾아 각각 3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2007년에 설립된 신재생에너지, 지열, 태양광설비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 애플러스공조 김병희 이사는 "무주군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장학사업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주)다함홀딩스 김보곤 대표 또한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김보곤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기탁한 장학금이 무주지역 학생들의 학업 지원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북은행 김학봉 부행장은 주니어 속옷과 비디오텐, 바디워시 칫솔과 치약이 담긴 꾸러미 50박스(187만 5,000원 상당)를 황인홍 군수에게 기탁했다.

김학봉 전북은행 부행장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2차 성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세 전후 여성 청소년들에게 주니어 속옷과 청결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20 주니어 속옷 나눔' 차원에서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접수된 물품은 무주군 관내 여성 청소년들에게 제공

/무주=전문선 기자



될 예정이다. 이에, 황인홍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학금을 기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이 장학금은 지역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주니어 속옷 나눔과 관련 황인홍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 힘든 이 시기에, 미래의 주역인 여성 청소년들에게 귀한 물품을 제공해 준 전북은행에 감사하다"면서 지역을 빛낼 인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제공받은 청결용품들을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도 '행복콜서비스', 균형발전우수사례 기관 표창

전북도의 지역 맞춤형 교통복지인 '행복콜서비스'가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도는 행복콜서비스 매뉴얼과 운영프로그램 개발에 전국 지자체 배포, 버스 및 택시 업계의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선도적으로 시행한 사례 및 지역주민의 높은 만족도와 올해 이용객 50여만 명의 폭발적 증가가 우수사례 선정요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로써 내년에 올해 수준의 예산을 인센티브로 받게 됐다.

지난 2015년도 행복콜버스 2대를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전북도는 올해 말 기준 75대 운영을 목표로 국비 52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104억원 규모로 도내 전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다.

행복콜서비스(DRT)는 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살린 신개념

대중교통 운영체제로 농·산·어촌 지역의 맞춤형 교통복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북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시스템이다.

그동안 주로 도비를 투입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대중교통 정책으로 평가받으면서 국정 과제에 포함됐고, 지난해부터 균특지원이 되고 있다.

행복콜서비스의 국비 지원은 시(市) 단위는 국토교통부, 군(郡) 단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눠 지원되고 있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군단위에 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사업이다.

전북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기관표창 수상을 계기로 향후 행복콜서비스의 업무 전산화, 다양한 운영 패턴의 모델화 등 행복콜서비스의 고도화에 선도적 역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협 전북지부, 정읍서 농촌 봉사활동 벌여

전협 전북지부는 11일 전협사랑봉사단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정읍 단곡마을을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불린투어 활동으로 정읍 단곡마을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도와 농촌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단곡마을 농가의 일손을 도와 지역 농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구마를 캐고 블루베리 잼 및 블루베리 청을 만들어 정읍 소외계층에 간식을 제공했다.

/김윤상 기자



장수군, 공무원 노조와 임금협약 체결

장수군과 전국공공운수노조장수군공무직지부(지부장 윤동수)는 11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배형근 행정지원과장, 윤동수 노조지부장, 간부공무원, 노조임원진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공무원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연간 급여총액의 5~7% 인상, ▲기간제 경력 소급 인정, ▲호봉 인상, ▲직군통합 임금체계 마련 등이다.

장수군은 이번 임금협약을 통해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물론, 군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업무에 따른 적정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군측 교섭대표인 배형근 행정지원과장은 "공무원 봉급이 3% 미만으로 인상된 상황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이 적용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생하는 군민들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며 "어려운 시절일수록 서로 배려하고 상생하는 풍토가 이루어지기



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동수 지부장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처우가 낮은 편이지만 기간제 경력 인정이라는 노조의 숙원이 해결된 만큼, 공무원노조도 군정발전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소방서, 다문화가족 대상 소방안전교육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11일 남원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남원시 다문화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결혼이민자 20명이 참석해 응급상황 시 대응요령인 심폐소생술 및 소화기 사용법 등을 실습 위주로 진행되었다.

또한 영유아의 이물질 기도폐쇄 시 응급처치 방법인 '하임리히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화재 시 119신고 방법, 소화기 사용법, 대피요령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병원 홍유미 전공의, 수필문학상 '우수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산부인과 홍유미 전공의가 제19회 한미수필문학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수상에 선정된 홍유미 전공의의 수필 '임신해서 미안해요'는 임신한 채로 산부인과에서 일하며 겪은 상황을 통해 얻은 생각을 솔직하게 집필해 깊은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다. 산부인과 전공의 4년 차로 근무하고 있는 홍유미 전공의는 자신이 산모가 된 상황에서 난임환자, 유산환자를 진료 및 치료하며 환자에게도, 자신의 아기에게도 미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한다. 어색하고 미안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산모들을 이해하고, 미워하고, 고마워하며 그들과 수 없이 많은 감정을 나누는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생활을 담담하게 그려내며 호평을 받았다.

홍유미 전공의는 작년에도 보령의사수필문학상에서 수필 '희비의 진풍경 앞에서'로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조남천 병원장은 "우리 병원의 전공의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른 분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며 "환자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으로 인술을 펼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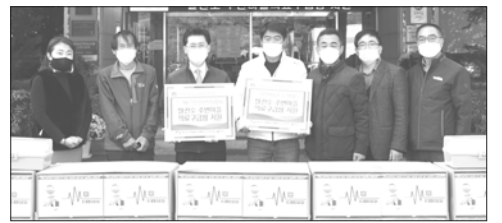
한편, 한미수필문학상은 환자와 의사 간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에 제정됐다. 대상 수상자는 '한국신문'을 통해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하게 된다.

/김윤상 기자

이날 수상식은 전북대병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조남천 병원장은 홍유미 전공의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홍유미 전공의는 "이번 수상은 큰 영광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무주양수발전소, 주변 지역민에 의료구급함 지원

무주양수발전소(소장 김경민, 위원장 오대양)는 최근 발전소 주변 최인접 마을(개안, 초리, 중리) 208가구에 구급함을 지원했다.

이번 구급함은 위급한 순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소독제와 밴드, 파스 등 응급처치 용품 20종 및 두통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5종이 포함돼 있다.

무주양수발전소는 이번 지원을 계기로 의료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들이 가정 및 일터에서의 경미한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급함은 양수발전소 소재지 지자체인 적성면장과 해당 마을청년회, 이장에게 전달했고 배달이 어려운 지역은 발전소 직원들이 가정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경찰서, 연말까지 주3회 음주운전 단속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오는 12월 31일까지 각 지구대·파출소와 권역별 합동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력과 정비를 총동원하여 시내권 뿐만 아니라 외곽지역까지 매주 3회 이상 주·야간 불문 집중 음주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고려해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이용해 실시된다. 서승현 경비교통과장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4H연합회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김제시 4H연합회(회장 조진범)는 11일 김제시 진봉면에서 청년4H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4H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김제시4H연합회 회원들이 올해 수확한 농작물의 수익금 모아, 김제시 관내에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따뜻한 겨울나기를 보탬이 되고자 연탄 4,200장을 37가구에 전달했다.

김제시 4H연합회 조진범 회장은 "4H이념을 바탕으로 농촌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회원간의 끈끈한 연대로 봉사할 수 있어 뿌듯 하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회원들의 힘을 모아 훈훈한 정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태 기자